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

-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연구

서정자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

-김말봉의 「밀림」과 「짚레꽃」연구

서정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말봉의 첫 장편소설 「밀림」과 「짚레꽃」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과 그 소설화 방식을 살펴본 글이다. 김말봉은 30여 년의 작가활동기간 단편소설은 20편을 쓴 반면 장편소설을 30편을 쓴 장편작가이다. 동시에 대중보다 소수의 지식인을 위한 문학이 문단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당대에 자신을 대중소설을 쓰는 작가로 천명을 한 작가가기도하다. 그의 소설은 크게 성공을 하여 그는 인기 대중소설 작가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대중 문학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짚레꽃」에만 관심을 보여왔다. 이 논문은 장편「밀림」을 집필 연재하는 도중 「동아일보」정간으로 집필이 중단되는 동안 「조선일보」에 「짚레꽃」이 연재되었고, 이후 「밀림」이 계속 쓰여졌던 점을 중시하고 두 작품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비교 검토하면서 작가의 사상이 소설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다.

이 논문은 「짚레꽃」과 달리 「밀림」은 신문에 발표된 작품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작품의 내용이 달라 연구자들이 김말봉의 문학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김말봉의 문학사상을 이해함이 없이 작품 분석에 임함에 따라 작품해석에 오류가 있음을 밝혔다. 동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김말봉의 첫 결혼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 일본 유학기의 학적을 확인함으로써

써 작가의식의 형성에 미친 체험을 새로 밝혀 작품 해석의 자료로 제시하였다.

작가는 자신의 초기 글에서부터 드러낸 아나키즘 사상을 소설화한다. 첫째, 사회주의 등, 제도나 권위를 바탕으로 한 의식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 대중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대중의 구원을 모색하는 행동형 인물 '유동섭'과 '조경구'를 창조하였다. 둘째 대중소설의 정식으로 해석되는 『질레꽃』도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애정소설이 아니라 삶의 비극적 인식으로 여성의 수난을 그리고 있으며 이 역시 작가의 사상을 드러내는 한 구조로 해석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또한 김말봉은 정의를 키워드로 하는 아나키즘의 영향으로 소설 속에 항일 애국의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을 밝혀 작가가 흥미 위주의 대중소설을 쓴 것만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소설을 썼음을 논증해 보았다.

핵심어: 김말봉, 노초, 『질레꽃』, 『밀림』, 아나키즘, 대중, 행동형 인물, 삶의 비극적 인식, 항일 저항의식.

1. 머리말

이 글은 89년에 발표한 필자의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 연구」¹⁾의 뒤에

- 1) 서정자,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 연구」, 필자는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김말봉의 처녀작 「식집사리」를 발굴했다. 이 소설이 김말봉의 소설이 확실하다는 판정을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말봉은 이 처녀작에서 당시로는 파격적이라 할 여성과 성의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이후 그의 소설은 인제나 여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이 논문은 김말봉의 초기 글들을 발굴하여 김말봉이 아나키즘을 바탕으로 한 작가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증하였고 그러한 그의 세계관으로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망명녀」가 당시의 보편적인 소설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기독교도, 사회주의 사상도 비판적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으며 해방되자 「부인신보」에 연재한 「화려한 지옥-카인의 시장-」도 아나키스트의 정의감과 행동 내지는 실천을 강조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쓰여졌음을 밝혔다. 그는 공창폐지운동을 펼치면서 공창 폐지 입법화에 성공하였고 그 운동을 그대로 소설화하여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하였다. 그의 이런 페미니즘 의식은 56년에 「조선일보」에 연재한 「생명」에서 미혼모 문제를 주제로 한 소설에까지 이어진다. 논문 요약을 첨부하는 것은 김말봉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참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여성과 문학』 제1집(문학세계사, 1989).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푸른 사상사, 2001), 소수.

이어지는 김말봉 문학 연구의 두 번째 글이다. 86년 정하은 편저『김말봉의 문학과 사회』²⁾가 출간되면서 신동욱, 윤남경, 김우규, 정하은의 김말봉 문학 연구 논문³⁾이 나왔고 그 후 몇 편의 김말봉 문학 연구 논문이 쓰여졌으나 김말봉 문학 연구는 아직도 시작의 단계에 머물어 있다. 신동욱 등의 연구 이후 김말봉의 문학은 크게 페미니즘 문학 연구와 대중문학 연구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페미니즘 문학 성과로서 김말봉 문학 연구는 전기한 필자의 논문과 이상진⁴⁾의 논문이 있고 대중문학적 성과로 김말봉의 『짚레꽃』을 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정영자, 김강호, 이경춘, 정희진, 이정옥의 논문을 필두로 적지 않은 숫자의 논문⁵⁾이 나왔다.

그러나 필자의 연구 외 거의 모든 논문이 김말봉의 소설을 대중소설 내지는 멜로드라마적 성격의 소설로 규정하고 대중소설의 성격 규명에 초점이 모아져서 김말봉 문학세계의 출발과 전모를 해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데에서 이 논문의 논의는 출발한다. 김말봉 문학연구의 문제는 또한 50년대 이후, 그러니까 6.25이후 김말봉이 연재했던 소설이 실린 신문과 잡지를 구하는 일이 현재 너무 어려워 김말봉의 문학 세계를 전체적으로 규명하

2)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중로서적, 1986).

3) 위의 책에 수록.

신동욱, 「여성의 운명과 순결미의 인식」

윤남경, 「『푸른 날개』와 그림자」

김우규, 「김말봉 문학의 대중성과 종교성」

정하은, 「반속 정신의 금자탑을 세운 『화려한 지옥』」

4) 이상진, 「대중소설의 반 페미니즘적 경향」,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그러나 이상진의 논문은 김말봉의 문학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았다기보다 대중소설의 시각으로 보았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5) 정영자, 『한국현대 여성문학론』(도서출판 지평, 1988).

이경춘, 『1930년대 대중소설 연구』(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4).

정희진, 『김말봉의 짚레꽃 연구』(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정옥, 『1930년대 한국대중소설의 이해』(국학자료원, 2000).

대중소설 및 신문 소설, 통속 소설 연구 서지는 위 논문 및 저서의 참고문헌 참고.

기는 쉽지 않다는 데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료 구하기가 쉬운 일제 강점기의 그의 문학도 대중문학이라는 고정관념으로 하여 기초적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도 없는 등 김말봉의 문학적 업적을 제대로 밝혀보려는 논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쓰여진 김말봉 문학연구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작가의 생애 연구가 진전이 없고 김말봉이 1922년부터 쓴 글들을 찾아 작가의식의 형성을 살핀 후 작품을 읽지 않아 그의 문학정신을 밝히고 있지 못한 점이고, 둘째는 김말봉의 초기 문학의 경우, 몇 개의 단편과 『질레꽃』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김말봉 문학의 해명에 많은 결함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김말봉의 문학적 성과가 대중소설의 성공에 있고 그의 작품 중에서도 장편소설 『질레꽃』이 거둔 성과가 너무도 뚜렷하기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 가는 오늘날 그의 소설 『질레꽃』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지만 여성작가이고 대중소설가라는 점 때문에 김말봉의 문학은 매우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김말봉의 출세 장편 『밀림』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지적되어 마땅하다. 『질레꽃』은 『밀림』이 연재 중단된 상황에서 『조선일보』에 연재된 작품이다. 김말봉은 『동아일보』의 4차 정간으로 『밀림』의 연재가 중단되자 『밀림』의 성공을 눈여겨본 『조선일보』가 장편 연재를 요청해 와 이를 받아들여 연재한 소설인데 김말봉은 『질레꽃』 연재를 끝낸 후 다시 복간한 『동아일보』에 『밀림』 연재를 계속했고 『밀림』 연재를 시작한 1935년 9월 26일부터 1938년 12월 25일 까지 3년3개월이 넘도록 거의 매일 소설을 써서 신문에 연재한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나온 것이 『밀림』과 『질레꽃』인 것이다. 말하자면 김말봉의 소설 『질레꽃』은 『밀림』속에 안겨 있는 형국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질레꽃』은 『밀림』과 함께 읽지 않으면 안 된다. 『질레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밀림』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질레꽃』이 미완이거나 불완전한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밀림』이 보여주는 작가의 사상과 『질레꽃』의 경우를 비교 검토하는 소설 읽기가 이루어져야 『질레

꽃』을 바르게 해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또 한가지 김말봉의 문학연구에서 깊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여성작가 작품에 임하는 연구자의 자세이다. 우선 김말봉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부터가 여성 작가에 대한 편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연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여성 작가의 작품은 남성작가의 작품을 대하는 자세에 비하여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원전확인을 거치지 않아 작품 해석에서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줄거리를 잘못 파악하기도 하는 것은 여성작가의 작품이기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 김말봉 연구에서 필자가 느낀 것은 김말봉이라는 작가의 거인 적 풍모이다. 『밀림』과 『짚레꽃』이 연재되던 당시 김말봉은 일본의 菊池寛에 비유되기도 했는데 독자들은 『밀림』과 『짚레꽃』의 치밀한 구성,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에서 천부적인 작가적 소양을 읽었던 것이다. 그의 글에서 흠이라면 오자가 많은 것. 약필로 유명한데다 구술하여 원고를 정리하게 한 탓인지 김말봉의 소설에는 오자가 많다. 오자가 많은 것이 독자로 하여금 이 작가의 작품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게 하였는지 모른다.

이에 이 글은 김말봉의 초기 소설, 『밀림』과 『짚레꽃』을 대상으로 작가 김말봉이 문학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던 사상과 작품 전개 방식을 살펴 대중 소설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간과하기 쉬웠던 김말봉 문학의 진정한 주제와 사상, 문학적 가치의 일단을 밝혀보고자 한다.

-
- 6) 여성작가를 반쪽이라고 불렀던 김문집이 그 좋은 예다. 그는 「조선 판 여류 구미론-김말봉을 평함-」에서 작가와 면식도 없는 자기가 김말봉을 평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 나무될 것은 잎새부터 안다는 속담이 있고 또 어머니가 딸자식을 꾸지람 할 때에 전제적으로 잘 사용해서 탄압적 효과를 보이는 속어에 「이년! 하나를 보문 열 가지를 알지!」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릴 때의 기억으로 잘 알고 있 “기에 김말봉을 평할 수 있다고 해서 마치 자신이 어머니가 딸자식을 꾸지람하는 위치에 있는 듯이 말하고 있다. 김문집 『비평문학』(청색지사, 1938), p.366.
- 7) 김남천은 「조선 인기 여인 예술가 군상」에서 김말봉을 평하면서 ‘일본의 국지관을 능가할 만 하다니 사실인지’ 라고 쓰고 있다. 『여성』(1937.9), p.19.

2. 노초(露草) 시대의 김말봉과 아나키즘

노초시대의 김말봉을 살펴보면 김말봉의 청년기, 그의 문학적 사상의 형성을 알 수 있다. 김말봉(1901.4.3-1961.2.9)의 본명은 말봉(末鳳), 필명은 김보옥(金步玉), 이문옥(李文玉), 또는 김말봉(金末峰)이며 아호는 노초(露草, 路草), 노엽(露葉), 꽃피 등이다. 경남 밀양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한 김말봉은 부산시 영주동 517번지로 이사와 미국인 어을빈 부인이 경영하는 소학교를 마치고 1914년 동래 일신여학교에 입학한다. 큰언니 보배가 하와이로 사진결혼을 갈 만큼 어려웠으나 김말봉은 그 언니의 도움 등으로 전문학교 과정까지 공부한다. 김말봉은 1922(21세)년부터 글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는데 『신생활』 1922년 6, 7호 그리고 8, 9호에는 김말봉의 시, 평론과 일기 등이 노초(路草)라는 아호로 발표되었다. 이후 김말봉은 노초, 노엽, 꽃피 등의 아호로 소설, 수필, 평론 등을 발표하며 1932년 김보옥이라는 필명으로 문단에 등단한 후부터는 아호로 글을 발표하는 일이 거의 없어 문단에 등단하기 전까지의 시기를 노초시대라고 부르기로 한다.⁸⁾

노초시대는 약 10년간에 걸쳐 있는데 작가의 나이 21세부터 31세까지인 이 시기는 작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이나 이 시기 작가의 행적이 알려져 있지 않아 김말봉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⁹⁾ 특히 처음 발굴한 단편 「식집사리」가 노초(露草)라는 아호로 연재되어 김말봉의 작품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이문옥이라는 필명으로 당선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증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문옥이라는 이름과 함께 쓰인 주소 역시 실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작가에게 시집살이의 체험이 있었다는 증언을 받아냄으로써 「식집사리」를 그의 작품으로 규정할 수 있었으나 1925년의 그가 어디에 있

8) 서정자, 「김말봉의 페미니즘 문학 연구」, 앞의 책, p.437.

9) 일신여학교, 정신여학교를 거쳐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신과 정신 양 쪽 모두에 김말봉의 학적이 없다. 일신의 경우 정신으로 전학을 간 탓인 듯 하고, 정신의 경우, 6.25 전쟁 당시 학적부를 잃실한 탓이다.

있는지, 그의 결혼은 어떻게 와해되었는지 등 확연히 밝혀지지 않은 대목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다.

말하자면 이 노초시대에 작가는 세계관을 형성하였고 작가가 평생동안 추구해 마지않은 어떤 상처 내지 체험이 있었던 것이다. 김말봉의 일본 도쿄 송영고등여학교 학적부와 교토 동지사여학교 전문학부 영문과 학적을 열람하여 이시기의 김말봉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문학 연구를 위해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송영고등여학교의 학적부에 따르면 김말봉은 1919년 3월 정신여학교 4년을 졸업하고 1922년 11월에 도쿄 송영고등여학교 4년에 편입하여 1923년 제 5학년 졸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근여숙에 다시 입학하여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가 연보는 잘못된 것인 듯. 학적부에 속소가 고근여숙으로 되어 있다.) 1924년 4월 11일 교토 동지사여학교 전문학부 영문과에 입학, 1927년 3월 21일 졸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919년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의 송영고등학교에 진학하기까지 2년 반 동안 김말봉은 3.1운동의 주모자로 투옥되어 고문으로 바른쪽 귀가 멀었으며¹⁰ 황해도 재령의 명신여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다. 일본에 건너가기 전 1922년에 발표한 글들은 정신여학교 졸업만의 학력으로 쓰여진 글이라고 믿기 어렵도록 세련되어 있다. 이 때 김말봉은 이미 아나키스트 의식을 그의 글에 드러내고 있다. 가난하여 언니 등의 도움이 필요하였던가 첫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던가 하는 사실에도¹¹ 불구하고 김말봉의 학적은 한 학기도 낙제가 없이 송영고등여학교부터 동지사 여학교

10) 한무숙, 「아아, 김말봉 선생」,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위의 책, p.47.

11) 단편 「석집사리」가 1925년 신춘문예에 응모되었던 것을 보면 결혼은 그 이전에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말봉의 유학비는 하와이에 있는 큰언니 보배와(박노석, 김선복 증언), 첫 남편 이씨가 대주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필자의 첫 논문에서 김선복씨가 남편이 제주사람 이씨라고 증언한 것을 썼지만 이번에 목포 출신 희곡작가 車凡錫 예술원 회장이 김말봉의 첫 남편의 이름이 이의현(李儀衍)씨일 것이며 제주가 고향이며 목포에 살았다는 중요한 증언을 하여주었다. 목포 유달산 등구(登山口)에 시택이 있었으며 김말봉씨는 '안경 쓰고 양머리하고 웅변가였다' 고 하였다.

전문학부까지 학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송영고등여학교 시기보다 전문학부의 성적이 다소 떨어진다는 정도의 변화(?)가 눈에 띈다. 김말봉의 학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였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김말봉은 1929년에 목포에서(?) 상경, 「중외일보」신문기자가 되었는데 27년 귀국 후 29년 사이에 첫 결혼이 와해되는 일이 있었다. 1930년 「삼천리」의 앙케트에서 김말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 살 짜리 딸 매매라고 쓰고 있어서,¹³⁾ 1927,8년경에 첫 딸 매매(재금)를 낳은 듯하며, 1924년 전문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의 첫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 하다. 졸업하고 목포에서 살다가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상경하여 중외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소설 「망명녀」를 쓰고 장편 「밀림」을 구상하였다.¹⁴⁾

송영고등여학교 재학 시 숙소가 고근여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때까지는 결혼하고 있지 않은 듯 하며 결혼을 하고 동거생활을 하였다는 동지사 여학교 전문학부 재학시절의 보증인은 그러나 남편의 이름이 아닌 유종열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¹⁴⁾ 그러니까 노초시대는 김말봉의 일본 유학기 전후가 되는 셈이며 이 시기에 아나키스트 의식도 확고해지고 한국의 초대 여성 장로가 된 기독교 신앙도(기독교 계열의 학교에 다니면서 심어졌겠지만) 독실하게 되며 첫 번 결혼 체험 등으로 여성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갖게도 된 것이다.

12) 김말봉, 「기회가 오면 단행」, 「삼천리」(1930, 초추).

13) 김말봉의 수필 「매매가 압흔 밤」을 보면 매매(김말봉의 딸 재금)는 주로 언니가 키우고 있다. 이 언니가 둘째 언니 선봉이인지 모른다.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김말봉은 아이 기르는 일과 살림을 언니에게 맡기고 사회활동에 나섰는데 중외일보 기자 생활을 하는 직업여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였던 것 같다. 「밀림」연재 시 작가소개를 보면 이 「밀림」을 위해 5년간 구상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의 첫 번 결혼이 와해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증언이 있다. 시집살이가 원인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등이다.

14)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일본의 미술평론가인 유종열(柳宗悅)과 이름이 같으나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말봉이 유종열의 영향을 받은 듯한 글에 「여기사시절의 감상」, 『조선지광』(1930.1)이 있다.

노초시대 초기의 글에서 김말봉의 사상을 살펴본다. 1922년 일본 유학 직전에 발표된 글들이다. 路草라는 아호로 발표된 시, 「암흑을 깨트리고」, 「비 오는 빈촌」, 「광야에 누워」, 「머리 둘 곳은 어데?」를 보면 시에도 깊은 소양이 있어 보인다. 『신생활』(1922.6)에 실린 「암흑을 깨트리고」에서 그는 “시커먼 밤은/별의 불 방울을/ 내 머리 위에서/한 덩이 두 덩이 떨어트린다//암흑을 깨트리고 닦는 별 불을/행여나 길이 보고 저 우뚝 서나/아아 이미 스러진 뒤에 선 나의 애처로움.” 이라고 해서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절망을 드러내고 「비 오는 빈촌」(『신생활』1922.6)에서는 이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오막살이들 쓸그러진 대문, 겉으로 찬비를 맞어 안으로 누렁물 흘리는…기아의 무도…” 이렇게 빈궁을 그린 작가는 “「빈궁은 비밀이라고. 아아 그 비밀에 불을 다뤄라」 부르짖는데 가난은 부끄러워 감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 문제삼아야 한다는 의지가 주목된다. 또한 그는 “꽃 노래 느리게 나는 높은 다락 즐비한 환락의 동네로 굴러가자 소슬 대문 붉은 기둥 집엔 봄도 찾고 웃음도 노래도 기어들련만” 해서 빈궁과 부를 대조적으로 제시한다. “인생의 밑창에 떨어진 이 마을엔 물려오는 건 다만 이 빈궁의 축루. 빈궁은 이 마을 사람의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다시 빈궁 계층의 삶을 비탄해 마지않는 시는 작가가 바로 이 빈궁계층의 편에서 있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그는 “아아 천당도 지옥도 돈이라는 이 시절이여! 이제 어디선지 교당의 쇠북이 운다.” 라는 구절을 이어 놓는다. 그가 인식한 식민지 조국의 현실은 빈궁의 현실이요, 천당도 지옥도 돈으로 결정된다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모순된 사회인 것이다.

『신생활』다음호에 실린 「머리 둘 곳은 어데?」를 보면 “아, 아 자유여/ 자유는 어데 있느냐//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자유는 없어//길바닥의 돌맹이를 들추어보아도/우물 속을 휘저으며 들여다보아도/자유는 없어”라고 해서 이 시의 화자는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다. “아아 들리나니/쇠사슬의 고리고리 우는 소릴러라” 폭력은 거리거리 뭍뭍이 독한 흰 이빨 박고는 붉은 고기 떨어는 입 부리로 잔학을 뿜어낸다고 하면서 작

가는 “인간을 엮어맨 이 날의 모든 문화는 /구속과 유린과 불안을 날로 내던져주면서/그래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권위를 찬미하는/문명을 구가하는/노래와 노래가 거리로 거리에 이었네”라고 권위와 문명을 비판하고 자유를 목말라 한다. 시의 화자는 자유를 목말라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아 정복을 받는 이의 살 곳은 어데고//우리 젊은 동무들아/우리 무쇠 팔뚝을 한테 묶으자/ 저 하늘을 찢어 버려라/지구를 밟아 으깨라/해와 달을 따다가 깨트리라//이렇게 캄캄한 세상에/ 이렇게 학대 많은 세상에/광명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정복을 받는 자의 머리 둘 곳은 어데냐”라고 부르짖으면서 행동을,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암흑을 깨트리고」는 시인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지만 「비오는 빈촌」과 「머리 둘 곳은 어데?」는 빈민의 삶과 일제의 식민지 치하에서 살아야 하는 정복당한 자의 자유를 잃어버린 삶을 처절하게 절규하고 있다. 그는 시에서 빈궁 민의 처참한 삶을 고발하면서 천당도 지옥도 돈으로 결정이 나는 황금 만능의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가 하면 “인간을 엮어맨 이 날의 모든 문화는 구속과 유린과 불안을 날로 내던져 주면서 그래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권위를 찬미하는, 문명을 구가하는 노래와 노래가 거리로 거리에 이었네”라고 해서 시인의 절망이 일제 식민지 치하라는 이 나라의 현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 문명, 권위가 지배하는 전 지구적 현상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말봉은 상황에 대한 절망에서 울부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쇠 팔뚝을 한테 묶어 저 하늘을 찢고 지구를 밟아 으깨고 해와 달을 따다가 깨트리라는 대단히 과격한 부르짖음을 토하고 있다.

이 시기에 쓴 글 중 특히 주목되는 「일기 중에서」(『신생활』1922.9)를 보면 “자각은 과연 귀한 것이다 농무(濃霧) 속에서 갈팡질팡 헤매다가 일조의 광선을 붙드는 맛을 준다. 그러나 자각이 생긴다고 반드시 안위와 쾌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중략) 그러므로 자각이 만일에 반역이라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쓰러지고 보면 그 자각은 다만 자기의 현상을 보고하는데서 그칠 뿐”이라고 하였다.

나는 흑장마(黑裝魔)가 도약하는 듯 시커먼 연기가 몽몽히 오르는 선혈이 임리 한 저 길로 떠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다, 불가불 떠나야 하겠다. 남의 눈물과 노동과 생명을 착취하면서 또는 그 착취의 도구나 영리한 방관자가 되면서 상아탑 속에 바람을 가리고 달을 안고 뒥구느니 보다는 차라리 혁편(革鞭) 아래에서 정의를 구하는 투사로서 쓰러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안위가 되겠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거짓말 가장 많이 제조하는 소위 성인이니 긴 하품을 하고 자빠져 있는 선생 놈들의 지껄대는 무슨 의무 봉공도 아니오, 살신성인도 아니오, 더군다나 충군 애국도 아니다. 일언으로 잘라 말하면 자아로서 뜨겁게 살기 위하여서 나를 바깥으로 주사하며 안으로 우버 파먹는 모든 모순과 모든 우상과 극북(極北)까지 전투코자 함에 불과하다. 권위 아래 고슴도치와 같이 몸을 움츠르트리고 사회를 회피하면서 그래도 얼굴에 발린 말로 진리라! 진리라! 하는 향락 파 개인주의자들은 물론 내 말을 퍼 가지고 방구석에 돌아앉아서 구수회의를 쏟으리라. 가련치 않으나 독시를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르는 착취자의 도구들! 우상의 충복들!¹⁵⁾

남의 눈물과 노동과 생명을 착취하면서 또는 그 착취의 도구나 영리한 방관자가 되면서 상아탑 속에 바람을 가리고 달을 안고 뒥구느니 보다는 차라리 가죽 채찍 아래에서 정의를 구하는 투사로 쓰러지기를 구하는 김말봉의 어조는 대단히 격하다.¹⁶⁾

이론이 사실을 해결치 못한다. (중략)그 사상으로서 용출하는 행동이 없으면 모든 그것은 지식적 수음의 한 도구일 뿐이다. 크로포트킨의 이른바 “행위에 의하여 너의 교의를 선전하라”한 말을 그 인격과 행동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의 피를 강도로 뒹게 하시고! 이태리 무정부주의자 마라티스타는 런던의 거리거리로 레몬수를 팔고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이태리 신문에 보내는 글을 썼다

15) 踏草, 「일기 중에서」, 『신생활』(1922.9), p.115.

16) 아나키즘의 근원에 깔려 있는 것은 분노와 저항이다. 방영준, 『아나키즘의 정의론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논문, 1990).

한다. 실로 주의선전의 자본은 외지로부터 구걸 해다가 먹는 그러한 선전비가 아니라 또는 부르주아의 턱 밑에서 받아오는 그러한 동정금이 아니라 노예의 권면 그것일 것이다. 선전자의 몸에서 솟아 나오는 피와 땀 그것일 것이다.¹⁷⁾

이 시기 시나 일기를 읽어보면 김말봉이 크로포트킨이나 마라티스타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나키즘¹⁸⁾에 깊이 영향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김말봉이 해방 후 아나키스트 유림이 이끄는 독립노동당의 부녀부장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¹⁹⁾ 이 글들을 보면 김말봉이 아나키즘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그의 문학이나 그의 삶 모두가 아나키즘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을 알게 된다. 민중, 또는 대중 계층에 대한 연민, 부르주아 계층에 대한 불신, 아나키스트적 정의감에 불타는 의지, 실천 및 행동을 강조하는 투사적 삶의 선택...이런 것들은 바로 그의 소설 주인공에게 부여한 캐릭터이자 김말봉 개인이 공창폐지 운동 등 그의 삶에서 보여준 바다. 그는 그의 아나키즘 사상에 따라 '대중'

17) 김말봉, 위의 글, 위의 책, 같은 곳.

18) 아나키즘 :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 사이의 사상사적 불연속성의 시대에 구체화된 아나키즘은 다양한 모습과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의라는 용어는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가장 자주 쓰이고 애용되는 용어로서 인간의 행동원리에서부터 정치적 질서 원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의(doctrine)로서 아나키즘(anarchism)은 많은 혼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나키즘이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그것이 자연적인 조화의 찬미와 권위에 대한 저항을 통치 기구의 부정으로 연결시키면서 정치 철학의 제 문제에 풍부한 상상과 충격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독단과 권위를 배제하고 또한 완벽한 흥대를 내는 이론을 피하면서 극도의 자유와 개인적 판단의 우위를 강조하는 아나키즘의 자유인적 태도의 성격으로 각양각색의 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미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방영준 위의 논문 여기 저기서 인용.

19) 부군되는 이종하(낙산)씨는 농민부장이었다. 진상범씨는 김말봉이 『밀립』을 쓸 때 그렇게 잘해주었다(박노석 증언)는 것을 미루어 보면 그도 아나키즘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에 애정을 갖고 '대중'을 위한 소설가가 되었던 것이다.

3. 삶의 비극적 인식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

우리는 노초시대에 김말봉이 아나키즘에 적지 아니 공감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김말봉이 아나키즘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말봉의 소설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는 김말봉을 비평하는 이들이 김말봉의 소설을 성실하게 읽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말봉의 소설이 안티 페미니즘 소설이라던가, 김말봉의 소설이 대중의 말초신경만을 자극하는 흥미 위주의 소설이라는 단정은 그의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설을 읽지 않은 데서 나온 오해인 것이다. 김말봉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다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가 아나키즘의 영향이라고 보이는 대중에 대한 관심과 그 구원의식이며 둘째가 여성의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그 지향점, 셋째는 식민지 시대의 항일 애국 의식이다. 김말봉의 이 세 가지 현실인식이 소설과 맺어지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김말봉 소설이 대중의 흥미에 영합하는 소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대중에 기여하는 소설임을 밝혀본다.

1) 김말봉의 '대중'과 행동형 인물의 창조

김말봉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문단에 등장한 작가다. 하나는 장편소설을 들고 등장하여 장편소설의 작가로 일관하다시피 한 것이요, 또 하나는 대중 소설가를 자처한 것이다. 아직까지 김말봉의 작품 연보가 완전하지 못하여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필자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김말봉의 소설중 장편이 30편인데 비하여 단편은 20편에 불과하다.²⁰⁾ 단편 「식집사리」, 「망명녀」로

20) 장편 30편, 단편 20편 외에 청소년 소설 6편, 수필 평론 잡문이 50편, 시 6편 김말봉의 작품은 도합 112편이다.

등단을 하였지만 해방 전 그가 쓴 단편은 「고행」, 「편지」까지 4편뿐이다. 장편, 그것도 신문 연재 소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순수문학이라고 할 단편 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²¹⁾ 그런 점에서 김말봉이야말로 진정한 소설가(novelist)라 하겠다.

김말봉은 또한 스스로 '나는 대중소설가다' 라고 자처하였는데 그가 말한 대중소설가란 위의 빈민 대중에 대한 애정과 아나키즘적 사고를 고려해 볼 때 저급소설가라는 뜻이라 기보다도 대중을 위한 소설가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앞서 노초시대 그의 글에서 살펴 본대로 대중, 빈민에 대한 그의 연민은 대중에 봉사해야 할 의무로 이어지고 글로써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김말봉은 반궁한 대중, 또는 민중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 부유한 조직, 권력 계층에 의하기 보다 한 개인의 눈물과 피와 땀에서 인류의 구원을 찾았다. 1922년에 시와 일기 등에 썼던 김말봉의 이러한 생각은 1935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장편 『밀림』과 『짚레꽃』의 등장인물에 그대로 반영된다.

우선 소설 제목을 보자. 『밀림』은 그가 그리고자하는 이 세계가 바로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황금만능의 사회, 즉 밀림 바로 그것이라는 비유가 느껴지며 『짚레꽃』은 꽃은 소박하고 향기롭지만 가시가 있다는 점에서 그의 비극적 세계관이 느껴진다. 그의 소설에서는 맹수와도 같은 강자이며 욕망의 화신인 인물이 반드시 출몰한다. 강자의 발에 짓밟히는 약자 역시 반드시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이 프로 소설과 같은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 문학 일색인 당시의 소설만 읽은 눈에는 사상이 없는 저급한 소설로 읽히기 쉽다.

김말봉의 『밀림』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김말봉의 『밀림』이 미완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김말봉은 이 『밀림』을 얼마나 오래 동안 연재할 작정이었는지 알 수 없다. 『밀림』의 전편이 1938년 2월 7일 293회로 끝나고 있

21) 정하은 편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의 작품연보에 장편 25편과 1백여 편의 단편을 썼다는 기록은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으며 1938년 7월 1일부터 후편이 시작되어 12월 25일 96회로 다시 중단, 『밀림』의 후편은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이 후 「동아일보」에서 『밀림』은 찾아지지 않는다.²²⁾ 그러나 장편『밀림』은 전편만으로도 충분히 완결된 소설이다. 우선 길이만도 전편만 2백자 원고지 3천장의 분량이며 작가는 후편도 아마 이 정도의 길이를 예상하였을 터이니 비록 4천여 장으로 후편이 미완이지만 『밀림』은 실로 작가의 처녀 장편이자 아심작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밀림』의 논의는 가능하며 반드시 되어야 한다.

장편『밀림』은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천 축항 공사 채석장에서 돌을 깨 나르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배가 고파 서양사람 공동묘지 옆에서 클로버를 뜯어다가 나물로 먹는 기아의 현상이자 혹사의 현상이오, 활 지옥인 이곳의 묘시는 소설이 시작하자 부터 7회나 계속된다.²³⁾

이 축항공사 현장에 공사를 맡은 서정연사장의 양아들 유동섭이 나타나 밥도 나눠먹고 병든 자를 돈을 주어 치료하게도 한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 구주 대학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현재 의학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22) 『밀림』의 중단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일어로 글을 쓰도록 강요하는 상황에서 작가가 스스로 중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김말봉은 일어로 글쓰기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김항명의 「눌린 여성과 민족을 사랑한 민중작가」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소수 글 참조.

『밀림』 단행본도 전편만이 출판되어 있다. 신문 연재 당시 「전편 완」으로 되어 있으므로 소설 뒤에 「전편 완」으로 표기한 듯 하며 후편은 출간되어 있지 않다.

『밀림』이 연재되는 동안 부군 전상범이 장질부사로 사망하여 1936년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달 간 중단되기도 했다. 『밀림』은 연재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중단의 사연도 많은 소설이다.

23) 1955년에 출간된 단행본 『밀림』 상(영창서관)에는 이러한 장면이 많이 삭제 됐다. 제1장의 제목이 '전장'에서 '일터'로 바뀌어 있듯이 살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1952년 문연사 판인 『밀림』 하에도 파업 장면이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등장, 전향하고 자살하는 대목 등이 많이 잘려 나가 이 단행본으로 소설을 읽는 독자는 소설의 내용을 오해하게 되어 있다. 다른 판본도 이런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을 텍스트로 하였다.

동섭은 빈민들의 처참한 삶을 목격하고 비로소 현실에 눈을 뜬다. 동섭은 세상의 모순과 인간문제로 고민하면서 공사장에서 의료봉사를 하는 한편, 야학에서 빈민의 자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그러다 동섭은 결심한바 있어 쓰던 박사논문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던지고 박사학위를 포기하는데 이 대목은 아나키스트 크로포트킨의 결단과 유사하다. 어떤 권위에 기대 시혜 의식으로 봉사를 하기 보다 맨몸으로 대중 속에 뛰어 들어 그들과 삶을 함께 하기로 한 동섭은 사회주의 운동가가 된 친구를 돕다 옥살이를 하게 되고 이 때 약혼한 자경이 상만과 결혼을 하게 되자 절망에 빠진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 때 동섭은 “한 계집아이의 사랑은 잃었다. 그러나 나에게겐 대중이 있다”²⁴라고 면도날을 던져버린다. 그는 다시 가난한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가 인천 축항 공사장 근처에 실비병원을 차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한다. 작가는 주인공 동섭의 입을 통해 이들을 대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고아 출신 상만이가 고상 졸업논문을 대필해 준 대가로 부자 집 아들의 도움을 받아 취직을 하려하나 못하게 되자 절치부심, 자신을 대중이라 이들을 부르주아로 규정하면서 복수를 맹세하고 있으나 작가는 상만을 대중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짚레꽃』의 경우 대중은 농민이다. 주인공 정순의 애인 민수네 집안의 몰락을 통해 식민지 시대 농민의 현실을 작가는 고발한다. 과다한 경조비 지출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의 부정적 측면이고 은행 빚을 얻어 대사를 치를 때는 추수하여 값을 예산이었지만 쌀값이 연이어 폭락하는 바람에 자작농은 어어없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으로 된다. 이 과정은 여러 연구자들이 인용한 바 있지만 민수 아버지 이도사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토지를 경락해 간 서울 지주의 사음에게 토지를 빼앗긴 설움을 서러워할 겨를도 없이 곧장 달려가서 소작권을 달라고 사정하는 일이다. 친구의 자식인 사음에게 생원을 붙여가며 사정을 한 늙은 농부는 집으로 오자

24) 김말봉, 『밀림』, 1936년 5월 20일자. 문연사 판(하)에서는 이 ‘대중’이라는 단어가 ‘사회’로 바뀌어 있다.

곧 기르던 암탉 두 마리와 장닭 한 마리를 보낸다. 이도사의 모습은 식민지 시대 가난한 농민, 바로 대중의 모습이다. 우리는 소설 『밀림』에서 도시 노동자와 빈민의 현실을 그린 작가가 『짚레꽃』에서 농민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치밀한 작가의 의도를 읽게 된다. 『짚레꽃』과 『밀림』을 나란히 읽어야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의 구원은 지식인 청년에 의해서 시도된다. 『밀림』의 경우에는 유동섭의 의료봉사 및 야학 지도로 나타나고, 『짚레꽃』의 경우에는 조정규의 농업 진흥회 운동으로 나타난다. 양아버지 서정연 사장이 청부를 맡은 인천 축항 매립 공사장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유동섭은 의학박사 학위를 집어던지고 빈민촌으로 들어가 의료와 야학을 통해 대중을 위한 봉사에 나선다. 동섭의 약혼자 자경은 친구 인애에게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는다. “저러다가 사회주의자가 된다면 큰일이겠지. 감옥살이하고 고문당하고…” 이 때 인애는 “이봐 자경, 조금도 걱정할 것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기뻐해야지. 그만한 사람으로 시대적 양심이 없다면 그걸 어파 쓰겠니?”라고 말하는데서 작가가 동섭을 시대적 양심을 지닌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박사학위 논문을 휴지통에 찢어 버린 것을 보고 실망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으며 항의하는 자경에게 동섭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자경의 고마운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요. 그렇지만 조선사람은 박사보다도 단 한 개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요. 내가 박사가 되려고 오 년이나 십 년 동안 서재에 들어앉아 있는 것 보다 나는 감기약과 소화제와 고약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겠소. 사실 감기 약을 얻지 못하여 장질부사나 폐병이 되고 소화제로 나올 것이 만성 위장병이 되고”²⁶⁾

25) 『밀림』, 『동아일보』1935년 11월 12일.

26) 『밀림』, 『동아일보』1935년 11월 26일.

동섭이 빈민을 위해 봉사를 하지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경이 염려한대로 병든 친구 창수를 돕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되며 동섭은 옥에서 풀려나자 인천으로 가 실비병원을 내고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돌본다. 행동과 실천으로 대중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집을 나와 인천의 빈민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동섭이 사회주의 운동가가 된 중학 동창 창수와 만나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가고 창수가 사상전향을 하게 되는 과정은 작가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동섭은 병든 친구 창수의 입원과 수술비를 감당하기 위해 사랑하는 자경의 약혼반지를 살 돈으로 그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내고 약혼반지는 조출한 금반지로 산다. 또 창수가 탈출에 필요한 자금을 요구하자 책이며 현미경, 시계까지 전당을 잡혀 마련해 준다. 그러나 창수는 동료로 믿었던 영수의 밀고로 다시 붙잡히게 되고 자금을 마련해 준 빌미로 동섭도 감옥엘 가게 된다. 창수는 사상전향을 한 것으로 되나 끝내는 자살을 한다. 푸로레타리아 대중의 구원을 내세운 사회주의 운동가 조창수가 자살을 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당시 사상전향이 흔하게 이루어진 현실도 원인이겠지만 작가가 사회주의 운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창수는 재판장에서 사상전향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나의 몸이라든가 나의 생명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조창수 내 한사람의 힘이란 것은 어떤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까닭입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여 보겠다는 그 일은 너무 크고 거기 비하여 내 힘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 적은 힘을 어떻게 사용할까 를 생각한 때문입니다.

대양을 횡단하려면 먼저 배를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엄을 쳐서 건너려고 한 것이, 요 얼마 전까지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부터 인류를 위한 행복을 초래하기 위하여 배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제일선에 나서서 일하던 것을 00로는

내가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나갈 생각입니다.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²⁷⁾ (00부분 판독불능)

조창수가 사상전향을 선언하자 동섭은 창수의 변절에 크게 실망하고 감옥에 돌아와 다음과 같은 독백을 한다.

“다 가거라. 갈 것은 가야한다. 겨는 날아가 버려라. 쪽정이라도 가거라. 한 포기 붉은 꽃을 위하여는 모든 잡초는 다 버혀지라. 한 알의 금강석을 얻기까지 크나큰 석탄광은 헐리고 만다. 그렇다, 참 일꾼 하나가 생기는 동안 모든 밀고자 모든 배반자의 검은 그림자가 어지럽게 뒤늘 것이다. 그러나 태양이 올 때 못별이 숨는 것처럼 참된 일꾼들이 올 때 비로소 거짓 샅꾼들은 그 자취를 감출 것이다.”²⁸⁾

이처럼 작가는 사회주의 운동가 또는 변절자들을 거짓 샅꾼으로 그리고 있어서 창수의 자살 설정이 의도적임을 알게 한다. 또 한 사람 사회주의 운동가로 나오는 정평산도 순수한 인간애로 도와주는 자경을 자금줄로만 인식, 자경을 실망시키는 등 아나키스트인 작가는 사회주의 사상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되풀이 보여준다. 아나키즘은 독단과 권위를 배제한다. 아나키즘이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가혹한 규율을 갖고 민중 위에 군림하여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소수의 통치자에 의한 입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다. 한 권력을 다른 권력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민중적 제도 위에 덮여 씌워진 권력을 배제하고 그런 연후에 그 자리에서 다른 권력을 창설하려고 하지 않는 개인과 사상과 행동의 조류가 아나키즘이다.²⁹⁾ 사회주의자가 자살을 하거나 변절을 하고 밀고를 하고 있는데서 작가의 의도

27) 『밀림』, 『동아일보』, 1936년 4월 24일. 이 대목도 단행본에서는 삭제되어 있다.

28) 위의 글, 1936년 5월 1일. 이 대목 역시 삭제되었다. 이 대목 전후가 중략으로 되어 있는데 단행본에 삭제되어 있으니 중략 부분을 알 길이 없다.

29) 크로포트킨 이을규 역, 『아나키즘』(창문각, 1973), pp.11~12.

를 읽지 못한 연구자가 『밀림』을 오해하는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원본을 읽지 못한 탓이요, 김말봉의 생애나 초기 글들을 참고하지 않은 결과 김말봉의 아나키스트 사상 수용을 알지 못한 탓이다.³⁰⁾

『짚레꼴』의 경우 이 대중을 위한 행동이 구체화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작가는 그러나 경구를 통해서 지식인의 사명을 분명히 하면서 작가의 현실인식-다시 말해서 대중에 대한 구원의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있다. 도쿄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구는 세계일주를 마치고 돌아와 농촌 진흥을 시급히 해야 할 일로 보고 동지를 규합한다. “오라 뜻이 같은 젊은이들아!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하고 번민만 하는 시절은 지나갔다. 산과 들은 바야흐로 우리들의 계획을 손들어 부르고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돌려보내라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음성은 오늘도 조선하늘에 들리고 있다. 넓은 들은 임자를 기다려 메마르고 있지만 땅의 주인인 농부는 자기들의 무기요, 직장이요, 생업인 농장으로 안심하고 돌아가지 못한다. 아니 거기서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늙고 자기 몸이 나서 돌아갈 그 땅 그 들에서 쫓기어 도회로만 몰려가고 있다. 무저항의 입과 같은 도회는 날 마다 날 마다 농촌의 청년을 몰아다 직접 간접으로 그들을 참살하고 있는 것이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계들은 시시각각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물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니 그보다도 도회

30) 이상진은 「대중소설의 반 페미니즘 경향」에서 “사회적인 문제를 제법 진지하게 제기하면서 시작되는 『밀림』을 보자. 이 작품에서 동성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과 얽혀 있다. …(중략) 동성과 인애 처럼 특별한 사상 없이 동정심의 차원에서 직접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략) 그러나 대개가 사기꾼에 가까운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나 긍정적이더라도 그저 장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중략)여기까지 이르면 멜로드라마적 속성이 독자 대중의 흥미를 끄는데 확고한 기반이 되지만 그만큼 반사회적인 면을 보임을 알 수 있다”라고 김말봉 소설을 반사회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본을 참고하지 않고 삭제된 단행본을 읽은 탓이다. 이 글은 인용한 작품의 출전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떤 책을 보고 이런 결론을 냈는지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한길사, 1995), pp.306-307.

특유의 먼지와 병균으로 탁하여진 공기 속에서 가지각색의 질병과 죄악이 그들의 영혼을 쪼 먹고 있다. 아아 동무여! 우리는 그들을 늙은 어머니의 품으로 기다리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의 집으로, 그리하여 그들이 쫓겨 나온 그들의 눈과 발으로 돌려 보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수로부터 입으로 떠드는 부자집 아들의 장난이라고 비판을 받자 실천을 해 보이기 위해 경구는 아버지로부터 거액을 받아내는데 이 모두가 작가의 아나키스트 의식에서 나오는 행동을 중시하는 대중의 구원방식이다.³¹⁾

김말봉의 소설에서 대중은 이렇듯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자 돌보아 주어야 할 노동자, 빈민, 농민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구원은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새로운 권력 조직이 아니라 의식 있는 지식인들의 행동 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2) 삶의 비극적 인식과 여성수난의 구조

그의 소설 제목에는 짙레꽃이나 장미와 같이 가시가 있는 꽃의 이름이 들어가는 제목이 많다. 『짙레꽃』, 『푸른 장미』, 『장미의 고향』…『짙레꽃』을 낳게 하였다는 기다하라 학슈(北原白秋)의 시를 보면 소설 제목을 『짙레꽃』으로 한 작가의 의도가 느껴진다.

짙레꽃이 피었네/하얀, 하얀 꽃이/짙레꽃의 가시는 아프다네/파아란 침의 가

31) 아나키스트의 행동지침을 보면 “아나키즘의 기초이념은 자유와 자발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직된 조직을 만들 가능성, 특히 권력을 잡고 특히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할 목적을 가진 당파란 성격의 것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한다. ‘예외 없이 모든 당파는 그것이 권력을 구하는 한 절대주의의 배경이다’라고 푸르동은 말하고 그의 후계자들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왔다. 당의 조직이란 생각 대신에 아나키스트들은 개인적인 민중적 충격이란 그들의 신비를 바꿔 놓는다. 실제로는 그 충격은 사람들은 지도한다기보다 오히려 계몽하고 그들에게 시범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선전자들의 일련의 자유로운 일시적 집단과 연합이란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조지 우드코크, 『아나키즘』(형설출판사, 1972), p.21.

시는 아프다네/찢레는 발 언덕에 가지를 펴고/언제나 지나는 길목을 지키네/찢레도 가을이면 열매를 맺네/황금빛 동그란 구슬을 맺네/나는 찢레꽃 곁에서 울었네 /모두 모두 상냥스런 미소를 보내는데/나만은 찢레꽃 곁에서 울었다 네.³²⁾

소박하나 향기로운 찢레꽃에는 가시가 있다… 이 진부한 비유가 삶의 아픔을 체험한 이에게는 새삼스런 진리로 다가올 수 있다. 『밀림』 집필 중 타계한 부군 전상범이 좋아하던 시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말봉은 전상범과 만나기 전 이미 삶에 대한 비극적 체험을 하고 있었다. 가난 속에서 성장하였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치르면서 결혼에 실패하기도 하였다. 직업 여성으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야나기(柳宗悅)의 글로 보이는 ‘이국인’의 생각에 김말봉은 새삼 공감하였는지 모른다.³³⁾ “이러한 말이 교단에 섰는 이국인의 입으로 외오쳐질 때 나는 눈물에 젖은 내 눈을 남이 볼까 두려워 내 책상만 내려다보고 앉았던 것이 생각한다”³⁴⁾

대중소설로서 『밀림』과 『찢레꽃』을 본 연구자들은 주인공 안정순과 주인공 에를 청순가련형 여성으로서 멜로드라마의 전형이라고 말한다. 지극히 현실적이며 복종적이며 소박하고 보수적이며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볼 때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라는 것이다.³⁵⁾ 인물을

32) 김항명, 「찢레꽃 일화」에서 인용.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앞의 책.

33) “곡선이 직선보다 긴 것은 물론이다. 조선의 건축을 보라 의복을 보라 그리고 일상에 소용되는 모든 가구들까지도 어느 것 하나 곡선의 모임이 아난 것이 없다. 이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실을—이 저주스럽고 미운 현실을 떠나서 어떠한 꿈을 그리는 것이다. 현재가 불만한 까닭에 보다 나은 미래를 동경하거나 즐거웠던 과거를 추억하여 비로소 만족하는 것이다. 조선가옥의 처마가 조금 위로 들린 것 같은 것이라든지 김치 담그는 항아리가 땅에 놓여지는 곳이 동구래서 불안스럽게 보이는 것(그밖에도 예를 들자면 수없이 많지만)은 조선사람이 얼마나 현실에 대하여 괴로워하는가를 그 제작품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꽃피, 「여기자생활의 감상」, 『조선지광』1930. 1, 136면.

34) 위의 글, 같은 곳.

35) 이상진, 앞의 글, p.307.

유형으로 분석하거나 여성의 순결을 절대 도덕으로 보고 있는 점등을 오늘의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다면 김말봉의 소설에서 안티페미니즘적 요소를 지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말봉이 처녀작에서부터 여성의 성적 억압을 문제 삼았고 성의 상품화를 문제 삼으면서 공창폐지 운동에 앞장 선 작가였음을 감안한다면 그의 소설을 페미니즘문학적 성과로 평가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김말봉은 『밀립』과 『짚레꽃』에서 여성들의 비극적 삶을 그렸다. 그러나 대중소설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며 복종적인 여성만이 결국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순결을 잃었기에 『밀립』의 서자경은 동섭에게 가지 못하고 상만과 결혼하지만 오만하고 순종을 모르는 발랄한 자경이 아이를 낳은 후 순종, 헌신, 인내의 덕목을 갖춘 아내로 변신한다. 그러나 자경은 끝내 이혼하게 되며 “한 남자의 사랑만 믿고 살아가던 인애는 상만과 헤어진 후에도 동섭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녀의 길로 가게 된다.³⁶⁾ 『짚레꽃』의 안정순이 청순 가련형의 여성이라는 주장도 의의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안정순이 병든 아버지의 치료비와 극도로 궁핍한 경제사정으로 가정교사 직을 그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견디는 것이지 소극적이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여성이어서 인내하는 것은 아니다. 재치 있고 발랄하며 적극적 성품을 지닌 여성이 『짚레꽃』의 안정순이다. 민수와 자유연애 중인 정순은 자기의 고용인인 조만호를 하마에 주인마누라를 칠면조에 비유하고 그들의 행동을 만화라고 생각할 만큼 대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틈만 있으면 거기에 웃음을 찾아내고 모든 사물의 하나 하나에서 유모어를 발견해내는 정순의 성격을 민수는 항상

“내 우울한 맘의 짙은 그늘을 쫓아내 주는 오직 하나의 태양!”³⁷⁾

36) 이 대목을 연구자가 오해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텍스트의 오류가 아닐까?

37) 김말봉, 『짚레꽃』, 『신문연재소설전집』(깊은샘), p.217.

이렇게 밝고 명랑한 정순이가 가정교사 노릇을 하면서 겪는 수난은 정순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수행해야 하는 가정교사라는 직업의 성격상 직업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분리되지 않은 탓이다. 직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는 정순을 여성으로만 보고 있는 주인 부부(주인 마누라는 얇아 누운 채, 들어오는 가정교사와 남편의 사이에 불미스런 일이 있을까봐 침모를 시켜 노상 감시를 해 두 달이 멀게 갈아치우고 있고, 주인영감은 가정교사를 보자마자 애욕의 대상으로 점을 찍는다.), 가정교사를 자신의 말동무나 하인쯤으로 생각하는 주인 딸 경애,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 대상으로 보고 있는 주인 아들 경구, 고용인인 침모조차 정순을 가정교사로 보기보다 여성으로만 보는 등 정순을 보는 눈은 오직 여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순의 주위는 청순 가련 할 수 없도록 살벌하다. 이 소설을 애정소설로 보게 하는 것은 이처럼 주인공 안정순을 생활전선에 나선 직업인 안정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만 보는 때문이다. 작가는 정순이, 민수가 결국 경애와 약혼을 한 것을 알고 난 후 다음과 같이 자조하는 대목에서 이 소설의 궁극적 주제가 애정 소설이 아님을 던지시 암시하고 있다.

“생활은 전쟁이다. 그리고 직업은 전쟁의 제일선이다. 더욱이 여자에게 있어서” 중얼거리며 머물러로 목을 감고 복도로 나오는 정순은,

〈살아야 되겠다.〉

는 의식이 탄환처럼 가슴 한복판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을 감각하였다.

〈연애라는 것은 인생에게 값 높은 예술이다. 그러나...전쟁에 나선 이상 생명은 예술보다 귀하다.〉³⁸⁾

주인 아들 경구가 세계일주에서 돌아오고 경애가 미친 말로 하여 죽을 고

38) 김말봉, 『짚레꽃』, 위의 책.

비에서 민수의 구원으로 살아오게 되는데 대한 축하연이 벌어지는 날의 정순의 상황을 보자. 이날의 주인공인 경애는 새로 배달된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면 노출되는 가슴 등허리 두 팔에 얼기 없이 화장을 해야 해서 정순을 불러왔다. 축하연의 여흥에 출연시킬 아이들의 유희를 가르치고 있던 정순은 경애의 시키는 대로 경애의 등허리에 콜드크림을 발라 마사지를 하고 가제로 닦아낸 뒤 폼피아 마사지크림으로 또 한번 등과 어깨를 **마찰**하고 가제로 닦아낸 뒤…더운 물수건과 찬 물수건이 몇 번이나 경애의 팔과 등허리를 싸고…화장수, 배니싱크림, 물분, 가루분, 연지…

아아 정순은 언제부터 미용사가 되었던고? 화장이 끝나자 이번에 정순은 꿇어앉아 경애의 양말을 신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최후로 경애가 신는 에나멜 구두를 수건으로 닦아 경애의 발에 신기고 그리고

“참 **훌륭**하게 어울리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중얼거리는 정순의 음성은 목을 졸리는 듯 어색하게 들렸다.³⁹⁾

경애는 이어 민수가 왔는지 현관에 나가보라고 한다. “상전의 명령 앞에서는 인제는 길들인 로봇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순”은 이 집의 미용사뿐 아니라 의사이자 교사이고 하인 역할까지 일인 다 역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천상병은 「사회와 윤리-김말봉의 『찐레꽃』론」에서 「찐레꽃」을 **흔한** 애정소설의 하나라고 못박고 시대상을 반영한데 약간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흔한**」 애정소설이면서도 주인공이 사랑을 성취하는 해피엔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김말봉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결합이거나 바람직한 결합은 아닌 것 같다”⁴⁰⁾고 여운을 남겨 놓았다. 이 소설의 결말은 등장인물들 아무도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멜러 물일**까? 김말봉의 소설은 대중소설이다 라는 선입견으로 얼마나 잘

39) 김말봉, 『찐레꽃』, 위의 책, p.239.

40) 천상병, 「사회와 윤리-김말봉의 『찐레꽃』론」, 한국장편문학대계 13, p.410.

못 읽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말봉 소설의 여성들은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 세상에 거칠 것 없이 행복할 것 같았던 부자 집 외동딸 『밀림』의 자경도 상만의 아내가 되었다가 남편의 방종을 목격하고 이혼 후 정처 없이 멀리 떠나고 인애도 자경에게 약혼자 상만을 빼앗기고 끝내 종교에 귀의하며 오꾸마도 요시애도 모두 사랑에 실패한 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짚레꽃』의 경애도 일본에서 첫사랑의 쓴잔을 맛본 후 정순의 애인 민수를 사랑하여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민수의 사랑을 얻은 것은 아니다. 안정순의 경우, 오해 속에서 복수의 염으로 경애와 약혼한 민수가 경애와 파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한 여자를 울렸으니 또 다시 한 여자를 울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완곡하게 거절을 한다. 그런 안정순에게 다가온 경구의 사랑 역시 성취라고 볼 수 없다. 매 회 흥미와 긴장으로 팽팽하였던 ‘재미있는’ 소설 『짚레꽃』은 여성에 대한 비극적 인식의 소설화다. 짚레꽃 그것처럼 가시가 있는 인생을 작가는 ‘대중’을 위해 흥미 있게 그렸고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대중의 삶을 농민의 현실을 중심으로 고발하였으며 지식인의 행동을 통한 구원을 역설한 것이다.

여기에서 작가 김말봉이 제시한 모성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자. 김말봉은 여성의 구원을 사랑에서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에서 찾게 한다. 『밀림』의 자경은 상만과 애정 없는 결혼 생활과 상만의 방종한 생활로 절망하나 새로운 생명을 낳아 기르면서 새 생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모성과 생명에 의한 구원의식은 『화려한 지옥』(46년)이나 『생명』(56년)에까지 이어진다. 작가 자신의 체험에서 온 절실한 목소리가 아닌가 생각된다.⁴¹⁾

3) 신문소설과 항일 애국의식 드러내기

김말봉의 소설에는 항일 애국의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그 소설화 방

41) 모성에 의한 구원의식은 30년 이전 그의 첫 결혼 시 체험했을 법하다. 30년, 그는 딸 매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다. 앞의 노초시대의 김말봉 참조.

식이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소설 속에 김말봉처럼 일본인들의 작태에 대한 분노를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없는 듯 하다. 『밀림』과 『짚레꽃』이 연재되고 있던 시기가 일제 말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대담한 표현은 작가 김말봉의 항일 애국의식을 새삼 평가하게 되는 부분이다. 작가 김말봉을 증언하는 글들에는 김말봉의 항일 애국의식이 남다른 것을 말하는 내용이 많다. 첫째, 3.1운동 당시 주모자로 투옥되어 고문으로 바른편 귀가 먼 것.⁴²⁾ 둘째, 일어로 글을 쓰라는 강요를 끝끝내 물리친 일.⁴³⁾ 셋째, 일신여학교 시절, 일본 명치 천황 부인의 사진을 끊어 놓고 나온 일.⁴⁴⁾ 넷째, 조병화 시집 출판기념회에서 어떤 시인이 술김에 조국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대판으로 싸운 일⁴⁵⁾ 등을 보면 김말봉의 애국의식이 매우 확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밀림』과 『짚레꽃』에도 그의 항일 애국의식이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짚레꽃』의 손기정 선수 이야기이다.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강제 폐간이 되었는데도 『짚레꽃』에는 손기정 선수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가정모임에서 어린이가 하는 인사말이고 대단치 않은 내용이지만 인기 신문소설 속에 손기정 선수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애국의식을 바탕으로 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정순이가 지도하는 영길이는 자기 누나가 미친 말에 탄 채 기차에 치어 죽을 뻔한 것을 살려 낸 민수에게 감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한다.

42) 한무숙, 앞의 글.

43) 89년 필자가 부산에서 인터뷰한 박노석시인의 증언에 의하면 일제 말 김말봉은 극심한 궁핍에 시달렸다고 한다. 부군 이종하씨는 일본에서 오지 않고, 초량동 장판도 없어 발을 닦을 수도 없는 집에서 살면서 손수 부엌일을 해 손이 튼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부산일보』에서 일어로 글을 쓰라고 해도 쓰지 않았다고 한다. 김항명의 「놀런 여성과 민족을 사랑한 민중 작가」(앞의 글)에서 일어로 글쓰기를 단호히 거절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44) 공덕귀, 「명치천황의 사진을 끊어놓고」,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앞의 글. p.175.

45) 조병화, 「애국심」,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위의 책, p.173.

“세상에서 제일 용하고 제일 착하고 그리고 제일 훌륭한 언니를 뽑는 우리 식구들은 참 정말 기쁜 맘뿐입니다. 이민수라고 하는 언니는 손기정 언니같이, 아니 그보다도 더 훌륭하고……”⁴⁶⁾

필자가 알기에 신문소설에 이와 같은 내용이 실린 적은 없는 듯하다. 김말봉은 『밀랍』에서도 항일 애국의식을 드러내는 에피소드를 삽입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이 대목도 해방 후 나온 판본에서 삭제되어 있다.

서정연 사장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사히 해결해 준 상만을 전격 비서로 채용을 하고 함께 동경 출장을 떠난다. 서울역에서 목단강행 차표를 사 들고 만주로 이민을 떠나는 농민 가족을 묘사한 작가는 동경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봉변을 겪는 서사장과 상만을 그린다. 이등 실 침대에 탄 두 조선인을 힐끗거리며 인삼장사일거라느니, 광산 브로커일 것이라느니 멋대로 단정하는 일인들의 경박한 작태는 급기야 서사장과 상만을 지갑을 훔친 도적으로 신고, 형사들이 와서 가방을 수색하고 옷까지 벗기고 몸수색을 하는 수모를 안긴다. 돈을 잃어버렸다는 노파가 자신의 피 속에서 지갑을 찾아내 혐의는 벗었지만 조선인은 ‘인찌기가 돼놔서…’ 라면서 무조건 무시하고 의심하는 일본인들의 오만 무례한 모습을 실감 있게 그려 주인공들 뿐 아니라 독자들도 분노하게 만든다. 작가의 항일 애국의식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행동형 인물 동섭이 감옥에 갇힌 상황의 묘사는 작가의 3.1운동 시 투옥되었던 체험을 쓴 듯 하고 창수의 전향을 보고 동섭이 토해내는 탄식은 그대로 애국 충정의 그것이다. (사상전향에는 금전제공 등 특전이 주어졌다.)

조선아 너는 버림을 받아 마땅하나? 너의 할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판 것처럼 너는 영원히, 영원히 쫓김을 받아야 마땅하나? 동족의 손이 자기를 빌라

46) 김말봉 『짚레꽃』, 앞의 책, p.240.

도에게 내어줄 것을 짐작한 그리스도는 무어라고 외쳤느냐.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에 내어주고 아비가 자식을 팔고 자식이 아비를 팔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치고 시어미가 며느리를 치고…” 무너져 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분의 눈물을 삼키던 그는 마침내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외쳤겠다. 예루살렘의 최후가 각 일각으로 닥쳐오건만 오히려 학대와 모함과 배반을 일삼고 있는 자기의 동족이 얼마나 그의 눈에 애달프게 비치었으랴. 나라가 망한 지 이 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오히려 유대민족의 등뒤에는 학살과 약탈과 추방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무슨 운명일까. (중략)

조선아 그러면 너도 수전노이냐. 과연 너는 그토록 인색하냐. 도망간 딸이 시체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그 귀에 달린 보석 귀걸이만 성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짖은 사일록처럼 과연 너는 돈만 아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의 역사에는 금전의 가치를 초월한 모든 선과 덕이 얼마나 많으나 네가 형제를 죽여? 네가 아버지를 몰라? 네가 자식을 팔아? 아니다, 아니다 다 아니다 오직 한가지가, 한가지가 부족하구나.

동섭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가지가 모자라…너의 피 속에는 끈적끈적하고 짙게 들어 붙는 응고력이 적단 말이야. 너무 맑아. 네 피는 저 파란 너의 하늘빛처럼 투명해. 흘러가는 맑은 물 같이 음영이 적어. 네 피에는 독소도 없고, 병균도 없어…그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먹을 것으로 알고, 아주 쉽고 만만한 과일로 아는 지도 모르지… 보아라 너는 백합 조개처럼 내장을 흘리어 네 속에 간직한 모든 귀한 것을 다 가져가건만 너는 무엇을 말하느냐. 너의 살진 등허리에 낫선 장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남으로 북으로 쫓기건만 너는 그래도 잠잠하지 않느냐. 사람이 너의 아들을 동으로 몰아 넣거나 너의 딸을 창기로 팔거나…조선아 너는 너무도 반발력이 없어.(중략) 한가지를 붙잡으면 목이 달아날 때까지 붙잡고 나갈 파악력이 있기에는 너는 너무도 영양분이 부족하다.”⁴⁷⁾

47) 김말봉, 『밀림』(『동아일보』1936.4.30).

조선민족의 현실을 성서 속의 유태민족에 비유하여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의 주구가 되어 밀고하는 현실, 그렇다고 전생을 걸었던 자신의 사상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소위 운동가들...가뭄과 흉년으로 굶주린 민족은 식량을 구하러 만주로 유리 방랑을 떠나건만 이들을 구하고 인도하여야 할 지도자들은 나약하여 돈과 회유에 지조를 파는 세상... 기막힌 조선의 현실을 한탄하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는 자못 웅변이다. 초기 작품에서부터 기독교적 관심이 반영되고 있으나 예문에서 보듯이 작가는 비유로 인용하고 있을 뿐 기독교적 주제를 소설화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기독교적 비유를 통해 말하고 있기는 하나 항일 애국의식이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글을 보면 작가의 애국의식 역시 아나키즘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아나키즘의 본질이라 할 정의감이 애국의식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이 글은 김말봉의 초기소설 『밀림』과 『찢레꽃』을 중심으로 김말봉 소설의 현실인식과 그 소설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쓰여졌다. 대중들의 흥미만을 위해서 쓰여질 뿐 시대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 아니라 대중들의 저급한 감정을 자극하는 소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중소설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지금까지 김말봉 소설은 우리 비평계나 문학사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찢레꽃』도 작가와 김말봉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분석함으로써 김말봉 문학의 진수를 해명해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단편으로 등단을 하였으나 곧바로 장편소설로 활동을 시작한 김말봉은 『밀림』과 『찢레꽃』으로 한국 신문소설의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작가 스스로 대중소설가라 천명함으로써 김말봉의 소설은 대중들의 오락을 위한 소설로

오해받아 왔다. 김말봉이 소위 **순수문학**이 문학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단에 대중소설가로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나키즘 사상에 공감**하여 권위나 권력을 낳는 조직을 불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말봉이 대중소설가라 천명한 것은 대중을 위한 소설가라는 의미가 강하다.

본 논문은 김말봉의 알려지지 않은 생애와 창작 활동을 하기 전 노초시대의 글들을 발굴 정리하여 김말봉의 작가의식 형성을 살펴보고 그가 공감하였다고 믿어지는 **아나키즘 사상의 시각**에서 김말봉의 시대와 사회의식을 살펴보았다. 1935년부터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밀림」은 일제의 강제 폐간으로 중단되고 복간되어 다시 연재를 계속하는 그 사이에 「조선일보」에 「짚레꽃」이 연재되었으므로 이 두 소설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김말봉의 초기 두 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그는 소설을 통해 첫째 대중의 비참한 삶의 모습과 그 문제점을 부각하였는데 장편 「밀림」에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밀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삶의 현장을 그리는 것을 즐거리로 하여 도시 노동자와 빈민의 현실을, 그리고 「짚레꽃」에서는 사랑이라는 허울을 쓰고 벌어지는 인간의 슬픈 욕망의 지도를 그리면서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농민의 참상을 그려 그가 생각하는 대중이 도시 노동자, 빈민, 농민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였다. 작가는 고발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역시 **아나키스트적 사고**를 하고 있는 지식인-「밀림」의 경우, 유동섭, 「짚레꽃」의 경우, 조경구를 통해서 선전문구나 떠드는 구원의식이 아니라 빈민 가운데 뛰어들어 그들과 삶을 함께 하는 행동형 인물을 창조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대중 구원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둘째, 김말봉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은 많은 수난을 겪으며 그리고 대중 소설 내지 멜로드라마의 공식인 **해피엔드**에 이르지 않는다. 소설의 제목에서도 그 의도가 알려지듯이 가시가 있는 여성의 삶을 그려 삶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소설화하였다. 「짚레꽃」을 애정소설이라, 통속소설이라 규정해 온 지금까지의 「짚레꽃」 해석은 재고되어 **마땅하다**.

셋째, 김말봉의 소설에는 항일 애국의를 드러내는 에피소드와 문맥이 많이 등장한다. 역시 아나키즘의 본질적 성격인 '정의감'의 발로로 보여지는 항일 애국 의식은 만인이 주시하는 인기 신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직설적으로 쓰였다. 일본인들의 조선인들을 의심부터 하고 보는 작태, 그런가 하면 사태가 바뀌자 여반장으로 굽실대는 비굴성,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에피소드는 우리 소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장면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들의 밀고와 전향을 비판하면서 조선의 하늘을 영양결핍이라 한탄하는 작가의 목소리에서 일제 암흑기, 검열과 감시 속에서도 의연하였던 작가 김말봉을 만나게 된다.

김말봉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탓으로 기초자료 탐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주어져 본격적 작품 분석이 미흡한 아쉬움이 있으나 지금까지 가려지고 묻혀져 밝혀지지 않은 김말봉 문학의 사상과 사회의식, 그리고 올바른 주제 탐색 등은 보람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김말봉의 여성적 감수성이 이룩한 리얼리티 넘치는 표현 등은 다른 논문에서 밝혀보고 싶은 부분이다. 다만 50년대 이후의 자료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의 문학 연구가 얼마나 오랜 탐색 후에 이루어질지 걱정이다.

■ 필자 : 초당대 교수

Abstract

The tragic recognition of the life and the creation of the active characters

– ‘Milim₁(Jungle)’ and ‘Chile-flower₁(Wild Rose)’ by Mal-bong Kim

Seo, Jung-Ja

This paper is about first novel ‘Jungle’ and ‘Wild Rose’ by Mal-bong Kim regarding the author’s ideas and the way of novelistic form. Mal-bong Kim is considered as a full-length novel author who wrote twenty short stories and had done thirty long novels. She also claims herself as a popular novel author in the days the literature for a few intellectuals is stronger than the popular literature for the general public. Her works were big success and she became a famous popular novel author.

Therefore, the criticism for her works have been done in the boundaries of the popular literature and among her works only ‘Wild Rose’ was focused. This paper aims the influence how the author’s idea affects the way of novelistic form with analyzing the assertion that ‘Jungle’ and ‘Wild Rose’ should be read together since even the serial novel ‘Jungle’ was discontinued due to ‘Dong-A Ilbo’ had suspended publication and during that period another serial novel ‘Wild Rose’ was published serially on ‘Chosun Ilbo’.

This paper also shows that there are some errors in the comments of the critics since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parate volume and the

serial novel on the papers of 'Jungle' led the critics to analyze the work without fully understanding of the author's literary world. The unrevealed evidence about the author's first marriage and the school register in Japan are found and presented here as new materials to show how

these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author's literary world. The author novelizes the Anarchism from her early works.

First, she created the active characters 'Dong-sub You' and 'Kyung-gu Cho' who grope the public salvation. They run into the midst of the public and make living with them rather have ideologies which are based on the authorities and systems such as Socialism.

Second, in 'Wild Rose', often interpreted as a type of popular novel, she describes women's sufferings with the tragic recognition of the life rather making it a love story which would arouse the public interest. This also is one of the way to show her literary world.

Third, this paper shows that the author wrote popular novels not only 'for public interest' but also 'for the public' with the direct exposure of her patriotism against Japan in her novels under the influence of the Anarchism.

연보

(김말봉의 연보는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의 연보를 바탕으로 도쿄 송영여고 학적부와 교토 동지사 여자 전문학부 학적부를 열람, 사실 확인을 거치고 김말봉과 인척관계이면서 전상범씨와 직장생활도 함께 한 박노석 시인과 예술원회장 차범석씨, 그리고 김말봉의 딸, 이정옥씨를 인터뷰한 자료 및 김선목씨의 전화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1901년 4월 8일 경남 밀양에서 부 김해 김씨 윤중(允仲)과 모 배복수(裵福守) 사이의 3자매 중 막내로 출생. 함양군 안의면에서 성장. 본적은 부산시 영주동 517번지. 본명은 말봉(末鳳), 필명은 김보옥(金步玉) 또는 김말봉(金末峰), 아호는 끝피, 노초(路草, 露草), 노엽(露葉). 미국인 어슬빈의 부인이 경영하는 기독교계 소학교에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침.

1914년 일신(日新)여학교(현 동래여고) 입학.

1917년 일신 3년 수료, 상경하여 정신여학교 4년 편입.

1919년 3월 정신여학교 4년 졸업.(송영고 학적부 의거)

1919년 황해도 재령 명신여학교 교원.

1922년 11월 도쿄에 있는 송영고등여학교(松榮高等女學校) 4학년에 편입. 고근여숙에 기숙.

1923년 송영고등여학교 제5학년 졸업.

1924년 4월 11일 교토 동지사여자전문학부 영문과 입학.

1924년 무렵 목포의 이의현씨와 동거. (결혼관계 호적 확인은 못함)

192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가정소설 부문에 단편 「쇠집사리」가 3등으로 입상. 아호 노초로 연재.

1927년 3월 21일 교토 동지사 여자전문학부 영문과 졸업.

1928년 첫 딸 매매(재금) 출생. 이 무렵 첫 결혼 정리한 듯.

1929년 중외일보 기자.

193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망명녀」가 김보옥(金步玉)이라는 필명으로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1933년 전상범씨와 재혼. 부산 동구 좌천동 794번지에 거주.(전상범씨와의 사이
에 영, 보옥 쌍둥이와 제옥을 낳음.)

1935년 9월 26일 「동아일보」에 『밀림』연재시작.

1936년 1월26일 부군 전상범씨 사망.

1936년 8월 29일 「동아일보」강제정간으로 연재중단.

1937년 3월31일부터 「조선일보」에 『질레꽃』연재 시작.

1937년 이종하(李鍾河)씨와 세 번째 결혼. (본적 경남 밀양군 하남읍 수산리 445
번지. 혼인신고는 43년 4월 29에 함)

1937년 6월 10일 딸 정옥(貞沃) 출생

1937년 10월 31일 『질레꽃』연재 완.

1937년 11월 1일『밀림』다시 연재 시작.

1938년 12월 25일 장편 밀림 후편 연재 중단.

1941년 4월4일 아들 무(茂·성우) 출생. (김말봉씨 소생의 자녀 모두 6명)

1945년 해방까지 일어로 글쓰기를 거부, 가난과 싸움.

서울 중구 동자동 18-20으로 이주.

1949년 하와이 시찰.(보배 언니가 하와이에 거주하였다)

1950년 귀국, 부산으로 피난하여 수정동에 거주.

1952년 9월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 예술가 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53년 동자동 자택(?)으로 이사.(집을 사서 이사?)

1954년 부군 이종하씨 사망.

1955년 미국무성 초청으로 도미 시찰, 펄벅 여사 만남.

1956년 귀국

1957(8?)년 12월2일 성남교회 창립 일에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여성 장로로 피선
(같은 해에 장로가 된 여성이 있었다고 하나 김말봉이 최초의 여성장로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당선.

1960년 4월 폐암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1961년 종로 오세헌 내과에 재 입원했으나 2월 9일 상오 6시 사망.

1962년 2월 9일 1주기를 맞아 망우리 묘지에 묘비 세움.

작품 연보

- 시 압혹을 깨트리고 신생활 1922.6
시 비오는 빈촌 신생활 1922.6
시 광야에 누워 신생활 1922.6
시 머리 둘 곳은 어디? 신생활 1922.7
평론 이상향의 남녀생활 신생활 1922.8호
수필 일기 중에서 신생활 1922.9
단편 식집사리 (이문옥, 노초로 연재) 동아일보신춘 가정소설 3등 1925. 4, 18-4, 25
수필 신사의 먹살을 잡고 별건곤 1927.8
수필 여귀자 생활의 감상(꽃미) 조선지광 1930.1
수필 비취는 대로의 최의순씨 철필 1930.8
앙케트 명류부인의 산아제한: 기회 오면 단행 삼천리1930.초추.
평론 감상과 비평 중외일보 1930. 2. 19
수필 매매가 아픈 밤 중외일보 1930.3.29
단편 망명녀 (김보옥) 중앙일보신춘문에 당선 1932. 1. 1-10
시 오월의 노래 신가정 1935.5
단편 고행 신가정 1935.7
수필 만리 장공 속에 달만 홀로 달려 신가정 1935.8
시 해바라기 신가정 1935.9
장편(?) 요람 신가정 1935.10-36.2(4회로 중단)
수필 애독자에 보내는 작가편지: 조각사의 태도에서
삼천리 1935.11

공트 산타클로스 조광 1935.12

장편 밀림 동아일보 1935. 9.26-1936.8.26까지 233회 연재 중 동아일보 4차 정간(1936.8.29-1937. 6. 2)으로 중단.(이 시기 연재 중에도 1936.1.26부터 2.25까지 부군 사망으로 연재 중단한 적 있음.)

수필 오월은 내 사랑의 상징 조광 1936.5

수필 나의 분격 삼천리 1936.12

장편 짙레꽃 조선일보 1937.3.31-10.31

수필 잠꼬대 소년 1937.10

단편 편지 조선여류작가선집 1937

수필 여행을 하고 싶다 동아일보 1938.1.8

1937. 10. 27 『밀림』 재 연재 광고 후 1937. 11.1부터 다시 연재 시작. 1938. 2. 7 전편 완, 총 293회. 1938. 6.25 후편 연재 예고 후 1938. 7. 1부터 후편 연재 시작, 1938년 12월 25일까지 96회 연재 후 중단. 후편 미완. 1939년부터 해방까지 김말봉의 소설 볼 수 없음.

장편 화려한 지옥(카인의 시장) 부인신보 1946. 봄-

단편 성좌는 부른다 김말봉 연합신문 1949.1. 23-29 6회 연재

단편 낙엽과 함께 김말봉 신어원 1949. 3(미확인)

평론 여성과 문예 서울신문 1949. 8.6-9

수필 공창 폐지 그 후 일년 연합신문 1949. 1. 23

수필 공창 폐지와 그 후의 대책 민성 1949.10

수필 낙엽과 주검 연합신문 1949. 11.9-11.11

수필 여권의 확립 부인경향 1950.1

수필 양여사와 나의 아라비안 인사 부인 1950.2

장편 별들의 고향 1950.

이야기 북청 물장수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박경중 기록 1950

단편 선물 현대문학 1951.

- 단편 **합장(합창)** 신조 1951.6(미확인)
장편 **꽃과 백** 1951.
장편 **설계도** 매일신문 1951
장편 **출발** 국제신문 1951
장편 **파도에 부치는 노래 희망** 1951.10-52.10
포트 **S와 주기도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발표연대미상
단편 **망령 문예** 1952.1
청소년 소설 **어머니의 책 새벗** 1952.1
장편 **태양의 권속** 서울신문 1952.2-7
수필 **하와이 야화** 신천지 1952.3
수필 **멀리 떠나 있는 남편** 신천지 1952.5
청소년소설 **호배추와 달걀 새벗** 1952
청소년 소설 **씨름 소년세계** 1952.12
장편 **계승자 사랑의 세계** 1952
단편 **바퀴소리 문예** 1953.2
청소년소설 **신랑과 신부와 화살과 학원** 1953.2
단편 **처녀애장** 전선문학 1953.2
수필 **베니스 기행** 신천지 속간호 1953.5
수필 **딱한 문제** 신천지 1953.5,6?
단편 **전략의 기록** 신천지 1953.7,8 **합병호**
수필 **내 아들 영이 문예** 1953.9
청소년소설 **은순이와 메리 새벗** 1953.10
청소년소설 **인순이의 일요일 학원** 1953.12
장편 **새를 보라** 영남일보 1953
장편 **파초의 꿈 학원** 1954
수필 **농촌부녀에게 부치는 편지 노향** 1954.3
단편 **파랑지갑 학생계** 1954.4

- 수필 나의 청춘기 중앙일보 1954.8.1
 장편 바람의 향연 여성계 1954.1-55.1
 장편 옥합을 열고 새가정 1954.2-55.3
 장편 푸른 날개 조선일보 1954.3.26-9.13
 단편 이슬에 젖어 현대공론 1954.12
 수필 나는 어머니를 닮았다고 새벽 1954.12
 단편 식칼 한 자루 신태양 1955.2
 단편 여심 현대문학 1955.2
 단편(?) 탕아기 여성계 1955.2?
 장편 찬란한 독배 국제신보 1955
 수필 대망의 노트 사상계 1955.3
 수필 아메리카 3개월 견문기 한국일보 1955.12.8-13
 장편 여신상 여성계 1956.1-6,9,11
 단편 사랑의 비중 여원 1956.4
 장편 생명 조선일보 1956.11-57-9
 장편 길 희망 1956
 수필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한국일보 1956.11.18-23
 수필 미국기행 연합신문 1956.11.26-12.6
 장편 푸른 장미 국제신보 1957.
 수필 시장계 올리는 인사 경향신문 1957.1.4
 수필 화장과 독서와 연합신문 1957.1.6
 장편 방초탑 여원 1957.2-58.2
 수필 인간·여인·전화 경향신문 1957. 3.10
 수필 아내라는 이름의 가정부 여성계 1957.5
 수필 바느질 품에 눕고 평화신문 1957.5.9
 장편 화관의 계절 한국일보 1957.9-58.5
 수필 주부들께 보내는 새해의 편지 한국일보 1958.1.12

- 수필 십대의 성년기록 연합신문 1958.1.22-23
수필 내성상 심사 소감 경향신문 1958.2.22
수필 함께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 한국일보 1958.5.6
장편 사슴 연합신문 1958.6-58.12
장편 아담의 후에 보건세계 1958.6-1959.2
수필 가을과 싱거운 병 경향신문 1958.9.9
장편 제비야 오렴 부산일보 1958.12.1-59.7.19
수필 한국 남성 정말 매력이 없나 자유공론 1958.12
수필 남의 나라에서 부러웠던 몇 가지 사실들
예술원보 1958.12
장편 행로난 주부생활 1958
장편 환희 조선일보 1958.12.15-59.6. 12
장편 광명한 아침 학원 1958.8-1959.1
수필 전화라는 것 경향신문 1959.1.7
수필 매화 서울신문 1959.2.6
수필 봄이라는 계절 연합신문 1959.2.11
수필 학생과 신문과 봄과 경향신문 1959.3.3
장편 장미의 고향 대구일보 1959
수필 대중문학 경향신문 1959.3.5(없음)
수필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신문 1959.12.4
장편 이브의 후에 현대문학 1960.4.-5 연재 중단
단편 20편.
장편 30편.
청소년 소설 6편.
수필, 평론, 잡문 50편.
시 6편.
총112편.